

Youth #7

CICA Museum

January 27 - February 14, 2020

2020. 1. 27 - 2. 14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Mark Bruno, Milan Ciric, Jigyu Choi 최지규, Vesna Dobricic, Tyler Nicole Glenn, Hayedam Han, The Unarchiver - Hayedam Han & Seungjae Shin 한하예달 & 신승재, Kirsten Hemrich, Lauren Kerr, Chaeyun Kim 김채윤, Junyoung Kim 김준영, WooJ 김우중, Van Lanigh, Jessica Chaeyoung Lee 이채영, Hyunha Lim 임현하, 민다솔, Min Seok 민석, Noah 노아, Ohkyoung Noh 노오경, Evge Noriavić, 박다빈, Hyerin Park 박혜린, Dongyoung Seo 서동영, Donghyun Shin 신동현, TITCH 티치, Hyeonjung Yoon 윤현정, Nat Ware, Josh Wells

1. Mark Bruno

“Certain Level of Success” (2020)

I work in sculpture, photography, and digital collage, often focusing on the overlaps between the categories. My explorations are anchored in the biases created by the digital image and our perception of it from the physical world. It creates moments of slippage between the physical and digital, providing the viewer an unexpected point to rethink their own biases in perception, allowing them to see in a less conditioned way within both realms. In my sculptural works, I am currently exploring this by manipulating the printed image's relationship with its frame and itself. The original images are photographed to incite the flatness of the digital world and layers of a collage. Then a layer of true digital collage is applied. The print itself is worked in ways that pull physically collaged elements into the realm of the print itself. Examples include application of paint, tape, or removal of the print that is determined by parts of the image. These elements then slip off

Markus Boynton is a recent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where he studied architecture and began exploring his curiosities in human perception and visual communication. These interests grew from his experience of growing up gay in the midst of Chicago suburbia, where he began to see things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and discovered the joy in questioning everything. After college, he moved to New York City to begin work as an experiential designer, designing products and experiences. In both design and architecture, he is surprised by how determined the fields are to draw dividing lines between art and themselves, which has since stirred an interest in muddying the boundaries within his own explorations.

2. Milan Ciric

“Angels of repetition” (2020)

The inspiration for this work came by itself over time. A lot of time was spent in thinking and searching for the truth. The life situations which repeat sometimes leave us craving for changes. We all hope new beginnings will bring the chances which will take us to salvation and happiness.

As the meaning of an angel is spirit we search for in times of darkest moments. From these spirits we seek salvation. Being afraid to conflict our inner depth and self, we fall into a trap. In this trap, there are no new knowledge, no new depth we can discover in ourselves. Just new layer of old doubts we need to cover ourselves with. Every new situation can only force us to remember the first time we were going through it. We begin to doubt in new hopes, and after some time we find ourselves right there where we first started. On that new old point of making a mistake. We search these outer wings to help us fly away from our insecurities and unrest by facing our own consciousness. This concept of circularity and never ending path we choose over and over, ignoring the fact that the change only can come from inner us and reflect to our outer self. This everlasting blaming surrounding for our own choices, hoping for finding comfort and peace eventually.

Size of this work is 60x60 cm and it is painted by acrylic paint and spray on canvas.

Milan Ciric was born in Novi Sad, Serbia in 1995. He finished middle school for civil engineering. Currently he is a graduating student of graphic design and printing technology on Faculty of technical sciences in Novi Sad, Serbia. He attended few exhibitions, mostly poster. He was featured in Wotisart magazine in August 2019, Averagearts magazine in August 2019 and in Arthole magazine in August 2020.

3. Jigyu Choi 최지규

“8 Colors 1 Belief” (2019)

인간의 믿음에 관하여 탐구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신념을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다. 주로 전통 안료와 동양의 종이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답습된 방식과는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통 재료와 동양화 기법을 활용하여, 동시대성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진행 중이다.

하나의 대상을 향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인간은 생각하고, 각자만의 정당한 이유로 존재한다.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작품 <8 Colors 1 Belief>는 똑같은 형태를 가진 여덟 개의 그림이 합쳐진 하나의 작품이다. 그리고 여덟 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사용한 안료와 재료는 동일하다. 다만 안료의 색 조합과 채색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덟 개의 그림은 각기 다른 빛깔을 발산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기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이 여덟 개의 작은 그림과 하나의 작품은 인간의 공존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4. Vesna Dobricic

“Midnight” (2020)

“Summer heat” (2020)

The exhibited photographs are part of the project “Polarized”. Using two polarization filters, she photographed different types of plastic. Through this research of materials, the question arose – How many times it is possible to reuse one plastic bag, one piece of cellophane, or one roll of sellotape to obtain different compositions? And the answer is – countless. Guided by that idea, she found her way to reuse plastic that cannot be avoided in daily life.

Vesna Dobričić was born in 1997 in Belgrade. She graduated photography at the Faculty of Applied Arts in Belgrade. Currently, she is the Master’s student of Photography. Her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in Serbia, Croatia, Bosnia, Hungary, as well as online.

5. Tyler Nicole Glenn

““Living For The Weekend (When You Know That It’s Going To End)” (2018)

Living For The Weekend (When You Know That It’s Going To End) is a video sound-art piece collage utilizing both text and visual imagery. This collage was created using Blingee, an online animated GIF creator. The collage features avatars from the online metaverse IMVU. These websites were most popular during the early 2010’s. This piece reflects upon the nostalgia people have for this bygone internet era, while representing the oversaturation of media on the internet today. The sound in the video creates a hypnotic, dissociative effect for the audience. This speaks to the collective form of anxiety induced by excessive exposure to social media.

Living For The Weekend (When You Know That's Going To End)는 텍스트와 시각적 이미지를 모두 활용한 비디오 사운드 아트 조각 콜라주입니다. 이 콜라주는 온라인 애니메이션 GIF 제작자인 Blingee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콜라주는 온라인 메타버스 IMVU의 아바타를 특징으로 하며, 2010년대 초에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 동영상은 지나간 인터넷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향수를 반영한다. 그 비디오는 또한 오늘날 인터넷의 미디어의 과포화를 나타낸다. 비디오의 소리는 관객들에게 최면술적이고 비사교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소셜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에 의해 야기된 집단적인 형태의 불안감을 말해준다.

Tyler Nicole Glenn (b. 1996) is an American artist currently working in sculpture, digital media,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hey are based in Tampa, Florida and are a recent graduate of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City where they received their BFA in Fine Arts with Honors. They are also an editorial contributor with Serving the People, where they conduct virtual studio visits with other emerging artists. They have participated in residencies at Brooklyn Glass and Sculpture Center (both in New York City) and have won the Fulbright Student Grant to Ulaanbaatar, Mongolia, which will be taking place in 2021.

Tyler Nicole Glenn (b. 1996)은 현재 조각, 디지털 미디어, 설치 및 공연에서 작업하는 미국 예술가입니다. Glenn은 플로리다 주 탬파에 기반을두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의 시각 예술 학교를 졸업하고 우등과 함께 미술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Serving the People의 편집 기고자로 다른 신진 아티스트와 가상 스튜디오 방문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Brooklyn Glass 과 Sculpture Center (모두 뉴욕시)의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Fulbright Student Grant를 수상했습니다.

6. The Unarchiver - Hayedam Han & Seungjae Shin 한하예담 & 신승재

“투영, 유영 (The Loaches)” (2019)

“ip* 환불. 장마. 택시. 엄마 (ip* refund. monsoon. taxi. mom)” (2020)

1) 투영, 유영 (The Loaches)

—

" 이입과 대립 간의 슬한 갈등 속, 공간은 비명한다. "

—

투영, 유영 (The Loaches), 2019, Performance,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08:01

Edit / Camera: Hayedam Han

@hayedamhan

Sound / Performance: Seungjae Shin

@sin_sngjae

All Copyrights Reserved by The Unarchiver

@unarchvr

—

독자적 생존. 그것은 성장의 방식이다. 급변하는 외부의 환경과 대응 및 작용하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 종 간의 상호적 교감, 즉 협력과 소통은 불가결하며 깊숙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했고 이는 '사회'라 명명되는 '생물의 제 2원리'를 형성하였다.

이번 작업에서는 생물로 분류되는 수많은 종 가운데 위와 같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현대 사회의 소통과 그로 인해 기인되는 일련의 감정, 사건, 현상과 연관 지어 추리한다. 작업의 주체는 낡고 고장이 나서 버려진 피아노를 죽어가는 생물적 객체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된 착각 속에서 실제 생물학적 종인 주체(인간)는 객체와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하며 교감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동시에 과연 생물과 무생물의 학술적 정의만이 그것들을 성립시키며 구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종으로서의 온당함, 충만함에 대한 변질된 기준을 재정립하려는 작업자의 시도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한국대중문화 속 안타까운 죽음들을 기리는 헌정이며 처절히 외쳐지는 적막의 비명이기도 하다.

2) ip* 환불. 장마. 택시. 엄마 (ip* refund. monsoon. taxi. mom)

—

ip* refund. monsoon. taxi. mom, 2020, Performance,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09:26

Edit: Hayedam Han

Performance: Seungjae Shin, Hayedam Han

Camera: Yeonhun Choe

© 2020. The Unarchiver.

@unarchvr

—

“ 일상을 공유하며 삶을 연동한다. “

낮선 주소를 함께 나누며 순간을 압축하는 것. 그것은 새 사회망(Network)속 새 생활방식이다. 이 세계는 사건의 공백을 결코 허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소한 일상의 단편들은 빠르고 손쉬운 편집을 통해 거대한 서사처럼 변환된다. 찰나의 순간은 때론 더 인상적인 공유를 위하여 작위적으로 연출된다. 이렇게 보정된 순간의 연속은 결국 실존하는 자신과 다른 주체를 구성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일치(동기화)시키기위한 덧없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삶과 세계(Net)의 벌어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연동의 오류' 속에 결국 우리는 의미 없는 공유를 지속하며 타인의 삶을 유추하고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본 작업은 이러한 피상적 삶의 공유를 거부하며 기존의 사회망(Network)과 다른 새로운 공유 주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는 단편만을 빠르게 편집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업로드하는 현대의 디지털 공유 방식과는 사뭇 다른 메커니즘을 지닌다. 카세트 테이프와 아날로그 편집 방식을 통하여 구성된 작업자의 퍼포먼스는 동일한 하루를 각기 다르게 보낸 두 사람의 일상을 이미지가 아닌 사운드로 연결한다. 우측의 작업자는 각자의 일상이 녹취된 두 테이프를 임의적으로 자르고 붙이며 이를 하나의 테이프로 통합한다. 통합의 잔여물이 된 남은 테이프들은 반대편의 작업자를 통하여 유추와 기록으로 수거된다. 보정 혹은 연출이 불가한 두 사운드의 비물질적 통합은 시각적 이미지를 포기하는 동시에 임의적 편집을 거쳐 이뤄지게된다. 이는 공유 주체와 공유된 일상의 연동성을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편집의 임의성을 통하여 보정되지 못한 날 것의 시간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또한 통합되지 못하여 남은 테이프를 수거하는 다른 작업자의 행위는 버려진 일상의 잉여물에 가치를 상정하고 이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공유되지 못하여 흔적도 없이 소실된 과거의 기억은 작업자의 유추와 더불어 회상으로 재생산되고 이는 또 다른 '내발적 공유' 로 이어지게 된다.

자연적 변화와 규칙성 없는 상황, 때론 무음과 소음으로 가득 찬 공허한 소리까지. 무의미한 시간을 나누며 이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본 작업의 새 공유방식은 근본적인 '이해'와 '공감'의 가능 여부를 의심케 한다. 이는 어쩌면 더 이상 이해가 아닌 '동화'를 위해 무분별한 공감을 지속하는 현세대를 향한 전환의 계기이며 새로운 공유의 주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팀 'The Unarchiver'는 매체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작업의 시초로 삼는다.

작업은 매체에 대한 선행적인 이해를 외면한 채 그것의 편리성에만 몰두하여 탐닉하는 현 사회의 시대성을 반영한다.

매체의 기원과 미래, 원리와 역리 등 함축되고 조립된 정보를 낱알이 풀이하듯 해체하는 그들의 작업은 SF사변소설, 퍼포먼스 비디오, 오디오 비주얼라이징 등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난다.

7. Kirsten Hemrich

“Poppies” (2020)

In my current body of work I continue my exploration of abstraction through mixed media painting and ceramics. My paintings blend drawings, text and diagrams. My ceramics play with classical forms and reimagine them expressively with plastic colors. As a whole, my work is informed by intuition and myth in a process that reconciles the grotesque and the beautiful. I am interested in exploring a universal spiritualism through a colorful, often humorous lens. Focusing on the activity of the artistic process, the themes of my work are determined by the unpremeditated end result. Improvisation is very important in my practice. Every action requires a response in art making. The result of this meditative process is one that reflects the intuitive self. Abstract forms take on the shape of birds, clouds, feet, flowers--loaded symbols that speak to individual memory and collective myth.

Kirsten Hemrich is based in Richmond, Virginia, United States.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of Virginia in 2018, she received a competitive Aunspaugh Fellowship to continue developing her practice for the 2018-19 academic year. Her paintings and sculptures have been exhibited regionally while her illustrations have been published in a handful of queer and feminist publications throughout North America and Europe. More information about her practice and examples of her work can be found on her website: <http://kmhemrich.com>.

8. Lauren Kerr

“Joy” (2019)

“Joy” is part of a larger project entitled, “Across Cultures: New & Old”. The project explores what is considered as the standard for what a local landscape looks like varies around the world and is different for everyone. The idea of what is considered familiar life is as various and as underrepresented as the people who live there. The average individual doesn’t normally spend a whole lot of time thinking about others in their own town, much less across the world. What if we did? By examining the interactions of “new” technology with age-old traditions in a variety of cultures around the world, the viewer can begin to notice the differences amongst these places, but most importantly, they will notice the immense amount of similarities each of these places share with others.

Lauren Kerr is a photographer and fine arts major. Her photographic work deals with nature, landscape, street, and light and explores a variety of themes of personal and social importance. Lauren’s work has been featured in solo shows, multiple group juried exhibitions (local, regional, & international), journals, and magazines.

9. Chaeyun Kim 김채윤

“두개의 옅은 집 Two Pale Houses” (2019)

This work was screened in the <Balgurum> exhibition as the part of a team project called “The First Album”, a team project about songs. Each participant chose a song that interests him or her and made an artwork about it. I took the pop songs from the 1970s which are 10cc’s <I’m Not in Love> and The Three Degrees’ <When Will I See You Again>, and made an experimental animation. The reason I chose these songs is that these are the best songs to represent the animation’s theme, which is a sense of heterogeneity and yearning.

Have you ever been engrossed that the surroundings disappear? Or have you chased the reality which is no longer there? The boundary between virtual and real-world collapses as you are yearning it. Have you ever dreamed of returning to the former place of residence even after you moved out? Have you travelled so long that after returning home, which should be the most comfortable place felt awkward? Your brain and body need time and effort to readjust.

If so, you might have more than two pale houses. Wherever can be your home, if you have someone precious in there. The heart float in the air without settling in one place. This cause maladjustment. I made this video with the sources from the internet and patchworked them into one scene, which gives a fairy tale and unreal. <When Will I See You Again> speaks about the longing for a boundless meeting. <I'm Not in Love> strongly denies that he is in love, by which, ironically shows that he is in love. I read these songs and arranged these songs for the video's music.

이 작업은 <1집>이라는 가요에 대한 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자신에게 흥미로운 곡을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나는 70년대의 팝송 중 10cc의 곡 와 The Three Degrees의 곡 을 모티프로 실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이 곡들을 고른 이유는 이질감과 그리움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너무나 몰두하여 주변의 것들을 잠시 잊어버린 것이 있는가? 혹은 눈앞의 현실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곳에 없는 현실만을 좇아 본 적이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은 몰입하는 순간과 몰입하지 않는 순간으로 구성된다. 가상을 열망하는 순간에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다. 다른 터전으로 옮겨 온 후 한동안 이전 터전에 있는, 혹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는 적이 있는가? 혹은 오랜 여행 후에 자신의 가장 편안“했던” 공간인 자신의 방에 있으면서도 묘한 이질감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몸은 그 공간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의 뇌가 적응하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맞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두 개 이상의 열은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곳 하나 당신의 집이 아닌 곳이 없다. 그곳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다. 마음은 하나의 집에 앉지 못하고 허공을 부유한다. 이는 부적응이라는 후유증을 알게 한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소스들을 패치워크하듯 조합해 만들어진 이 판타지는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The Three Degrees의 곡, 은 기억 없는 만남에 대해 기다림을 노래하는 곡이다. 10cc의 곡, 는 사랑에 빠졌음을 완강히 부정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더욱더 강하게 사랑에 빠졌음을 역설하는 곡이다. 이 두 곡을 재해석하고, 편곡하여 제작한 음원을 영상의 배경음으로 사용하였다.

Chaeyun Kim's works address the new aesthetics, aspirations, and changes in consumption due to digitaliza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ophistication of fiction penetrate deeper inside of people, creating new fantasy and digital nostalgia.

Algorithmization and stimulating content based on digital fashion makes sense dull.

She mainly uses narratives to view the problems of reality and work across various media such as painting, video, web, book, sound, and photography.

작가 김채윤은 디지털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미학, 열망, 그리고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기술의 발전과 정교해지는 픽션은 점점 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침투한다. 이들은 새로운 판타지와 디지털 향수를 만들어낸다.

알고리즘화와 디지털 유행에 의한 자극적인 콘텐츠에의 노출은 감각을 둔감하게 만든다.

주로 내러티브를 이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조망하는 작업을 하며 페인팅, 일러스트레이션, 영상, 웹, 책, 사운드,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다.

10. Junyoung Kim 김준영

“Digitally Isolated_01” (2020)

“Digitally Isolated_02” (2020)

“Digitally Isolated_04” (2020)

“Digitally Isolated_09” (2020)

“Digitally Isolated_11” (2020)

Street view is the perfect representative of overflowing digital images. When you walk through the street view, you can find some photogenic places that have never been seen. Most of these places are created due to some errors during photo manipulation. I think it is ironic that photos taken by robots for the purpose of archiving are actually cannot be found in real life and look almost surreal. These places feel like an isolated landscape far from reality.

스트리트 뷰를 떠돌아다니다 보면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포토제닉한 장면들을 보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촬영 기기가 360도 사진을 스트리트 뷰 형식으로 합성하면서 생긴 오류들인데, 공교롭게도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면 흥미롭지 않았을 이미지들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초현실적인 풍경이 된다.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로봇이 만들어낸 이 풍경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분명 자료로서 남겨진 사진들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이런 장소들이 존재할 리 없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 장소들은 마치, 현실에서 동떨어진 고립된 풍경과 같이 느껴진다.

Unlike in the past, contemporary photographs are diffused and processed at a very rapid rate. Millions of past scenes are captured every day, accumulating like dust sinking into the sea. It seems difficult to find any meaning or uniqueness in one of these particular images of the digital age. I try to unravel from my work how photographs are used and processed in contemporary times and what I find in my work.

과거와는 달리, 동시대의 사진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 가공된다. 하루에도 수백만 장씩 과거의 장면들이 담기며, 마치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먼지처럼 축적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 시대의 특정 이미지 하나에서 어떤 의미나 유일성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나는 동시대에서 사진이 어떻게 사용되고 가공되는지,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지 내 작업에서 풀어내려 한다.

11. WooJ 김우중

“콩나물 시루 Packed in like sardies” (2020)

“느림보 활주 Slow skating” (2020)

“침묵의 거리 Street of silence” (2020)

“거울 속 나무 한 그루 A tree in the mirror” (2020)

콩나물 시루 Packed in like sardies, 2020, 종이 위에 잉크와 먹
모두가 똑같은 안경을 쓰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똑같은 영화를 본다. 모두가 콩나물 시루 같다.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곳을 목표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모두가 콩나물 시루 같다.

느림보 활주 Slow skating, 2020, 종이 위에 잉크와 먹
무수히 많은 별들로 사방이 둘러싸인 곳. 그 사이에 꼬불꼬불한 길이 펼쳐져 있다. 나는 그 길을 느리게 활주한다.

침묵의 거리 Street of silence, 2020, 종이 위에 잉크와 먹
거리는 암울한 세상으로 치달고 있었다.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거리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밤 희망찬 꿈을 꾸는 한 소년이 있었다. 세상이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자, 소년은 무채색 거리 위로 자신의 꿈을 뿌렸다. 그러자 거리와 세상에 희망의 색이 입혀졌다.

거울 속 나무 한 그루 A tree in the mirror, 2020, 종이 위에 잉크와 먹

거울에 비친 나를 찍었다. 거울이라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한 그루의 나무같은 존재였다. 거울 너머로 시선을 보냈다. 비경이 펼쳐진 그 곳에는 수 많은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있었다. 거울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 스스로가 유일한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나는 수 많은 나무 중에 하나였다.

내면의 빛과 그림자, 외면의 흑과 백

일상 속에서의 진중하고 끊임없는 고찰을 흑백을 이용하여, 꿈 꾸고 상상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2. Van Lanigh

“...And Justice for All” (2020)

“Something in Between” (2020)

“The Triumph of Life ” (2020)

“Water nymph” (2020)

“The air near my fingers” (2020)

Chasing Rainbows

The Project “Chasing Rainbows” is about the perception of the world of feelings. No one felt the exactly one emotion at the time, it's always the crazy waterfall with undertones of sensations. And this rainbow of feelings Van Lanigh interprets in her works by running away from the real world of colors to the imaginary universe of impressions.

Inspired by great masters as Vrubel and Monet, **Van Lanigh** creates figurative and landscape pieces. Her unique style is a reaction to abstractionism in an attempt to capture surrealistic yet casual reality. This is especially underlined by new forms and materials used in Van Lanigh's artworks aimed to achieve the viewer's resonance between visual effect and message of the painting.

One of her experiments is getting Pointillism into 3D space by making a series of human-face sculptures with small colorful handcrafted polymer clay balls.

13. Jessica Chaeyoung Lee 이채영

“Sanctuary” (2020)

“Wild Plant in a Greenhouse” (2018)

“March 13th” (2019)

“Comical Figure” (2020)

“Untitled Composition in Quarantine” (2020)

1. Sanctuary (2020)

Sanctuary is a self-portrait representing my fragile fantasy of a safe environment. The painting contains a translucent figure who is simultaneously present, absent, and existing. Slow, quiet strokes infused with calming viridescent colors form an imagery of the woods; a perfect hiding space for me, a sanctuary.

Sanctuary (2020)는 제삼자적 시선으로 이루어진 나의 불완전한 안식처이자 성역이다.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선에서 있는 숲속의 인물은 나의 불투명한 자아를 투영하고 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이루어진 캔버스 위 숲속은 보는 이를 초대하는 듯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방관자적 시점에 머물게 한다.

2. 온실 속의 잡초, Wild Plant in a Greenhouse (2018)

A painting leading up to *Sanctuary*, *Wild Plant in a Greenhouse* presents the narrative behind a tentative figure's conformity to an artificially constructed safe space.

Sanctuary (2020)의 서곡인 온실 속의 잡초 (2018)는 자신을 보듬아주는 안식처이면서도 억누르는 정신적 감옥인 온실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인물의 고뇌와 망설임을 담고 있다.

3. March 13th, 2019 (Dream Series)

A tunnel dug up by a lake,
잔잔한 호수 옆 파헤쳐진 터널,
a time-traveling spiral slide that leads to an old underground bunker,
오래된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시간 여행을 하는 나선형의 미끄럼틀,
My brother and I go back to see if our mom is still alive.
나와 내 동생은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기 위해 돌아간다.
Things are rusty and disgusting in the bunker, no sign of human trace.
모든 것이 녹슬고 더러운 벙커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When we arrive downstairs, dad is there sitting at the end of the slide.
지하로 들어선 우리는 미끄럼틀 꼬트머리에 앉아있는 아빠의 무거운 뒷모습을 발견한다.
My siblings and I try to find mom.
우리는 엄마의 흔적을 쫓는다.
Hologram/silhouette of mom composited with her memories greets us (her voice sounds like a recording).
엄마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실루엣이 우리를 반기며 녹음된 듯한 목소리를 낸다.
Overwhelmed by sadness, I hug her silhouette.
슬픔에 압도된 나는 엄마의 실루엣을 안는다.

4. Comical Figure (2020)

Remnants.

Remnants of a figure.

Remnants of what used to be.

Remanence is presence.

An exploration of figures in landscape.

Comical Figure presents a crude remnant of an obliterated figure in a scenic landscape.

잔상.

인물의 잔상들,

과거의 흔적들.

직선적 시간의 흐름 속 숨 쉬는 원형적 기억들.

유(有)와 무(無)의 대립과 공존.

일상 속 유령처럼 깃들여 있는 형태 없는 잔상들.

Comical Figure (2020)는 회화적 공간의 “완전함”과 그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형상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내는 모호한 조화를 담고 있다.

Through a notional conversation between painting and video, Lee's works explore the tension between two prominent, contrasting forces of conformity and resistance, as well as the underlying anxiety of containment, redundancy, and banality in everyday life. It is an agitated conversation between her emotions, and the consequential reactions transcribed in two mediums. Fragments of self-psychoanalysis complicated with a desired intent are manifested in images that cannot be accurately conveyed, but only defined by a string of adjectives. An incensed narrative juxtaposed by a quiet result. I think it'll make you laugh.

반복되는 일상에 순응하는 듯 사는 자의 내면에 잠재하는 지루함, 불안감, 그리고 막연한 저항심, 순응과 저항의 대립되는 감정들이 불러오는 내적 갈등, 작품 속에 공존하는 절제와 무절제, 그 속의 일시적인 균형. 페인팅과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이채영의 작품들은 이러한 모순이 만들어내는 이중적 화음을 표현한다. 그의 작품들은 다가설 수 없는 중간점에 가야만 하는 부조리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 비극은 어쩌면 당신을 웃게 만드는 희극이 될 수도 있다.

Jessica Chaeyoung Lee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exploring the built-up tension and juxtaposition in everyday life through her paintings and videos. Lee majored in Visual Arts in Idyllwild Arts Academy in California, and earned a BFA degree in New York University. Lee was born in Seoul but spent her early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in America, and draws inspiration from the countless cultural and psychological juxtapositions she has encountered in her life.

이채영은 일상 속 심리적 그리고 시각적 모순이 만들어내는 이중적 화음을 페인팅과 비디오로 재해석하는 신진작가입니다. 그녀는 미국 아이딜 와일드 예술고등학교에서 Visual Arts Major를 전공하고,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미술학사 (BFA)를 전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반되는 문화권에서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인생 속 다양한 대립들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 Hyunha Lim 입현하

“Hybrid 산수화” (2020)

Hybrid 산수화, 2020
Digital Print on Wool Silk 180x70cm

The work draws a 'Utopia' that the artist suggests as a place where all the advantages of what she experienced from every place she lived (South Korea, Czech-republic, Thailand, and the UK). However, this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find nor build, because the places that appears in the work are physically and culturally in a distance. This work substantializes this impossibility, drawing the artist's home of her mind, while having a sense of alienation both being outside and inside of Korea.

Long ago, scholars loved and valued spending time within nature hung Sansuwha(landscape painting) in their room when they could not go to nature because they did not have enough time, studying all day long. Their reason for visiting the mountain was to enjoy the scenery of the mountain, to heal the wounds of living in the prejudice of the standard society. This work is a 'simulation' towards a Utopia. In other words, Sansuwha is a visualization of Utopia of the present. This work is also a kind of a Sansuwha.

This Sansuwha reflects on globalization, different cultures shared by online platforms, the simplicity of communication, and the international nomads created by all of this, as well as overseas workers. This work is done by the artist who has experienced all of the above, which makes it as a contemporary image.

작가는 4개국, 6개의 다른 도시에서 자라왔다. 한국, 체코, 태국, 영국은 서로 문화적 환경적 조건이 달랐고, 이에 작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 장소들, 일화들을 경험하였다. 다양한 경험을 한 만큼, 작가는 나라에서 나라를 옮겨 다닐 때마다 항상 자신이 전에 살아온 곳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특정한 장소에 온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작가의 작품에서 제시하는 '이상향'은 작가 본인이 살아온 장소들의 장점들만 가진 곳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태국의 뜨거운 땀별 아래에서 수박 주스를 마시는 것과 영국의 테이트 모던 앞에서

듣는 길거리 거리공연은 동시에 경험할 수 없다. 두 장소는 물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멀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가능한 요소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가 살아온 여러 나라의 자연경관을 한 화면에 담은 작품은 작가의 이상향을 보여준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던 선비들은 시간이 모자라 자연에 가지 못할 때 산수화를 방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산을 찾는 이유는 산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사회의 편견 속에서 살아가며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이 작업은 하나의 이상향을 향한 '시뮬레이션' 이다. 즉, 산수화란 당대의 유토피아를 시각화한 그림이다. 이 작업도 일종의 산수화이다.

이동수단이 손쉽고 빠르고 간단해진 시대에서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작가의 산수화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유되는 각 나라의 문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간편함,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자발적 및 비자발적 유목민들, 해외 노동자들 등이다. 현대의 이러한 급진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온 작가의 관점을 통해 본 현대의 산수화는 현재의 동시대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Hyunha was born in South Korea and lived abroad in Czech Republic, Thailand, and the UK. She is interested in multiplicity and diversity within the society, as a person who cannot categorize herself in a particular culture or region. She is exploring the idea that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in a society is not only dependent on the places where each person has experienced, but also on what kind of source they choose within the excessive amount, and depth of information of this period of overflowing information.

체코, 태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해외에서는 이방인으로, 국내에서는 특별한 거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어느 한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사회에 다양성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한 사회 속 개개인의 다양성이란 경험한 장소들의 영향도 있지만, 정보가 과잉되는 시대에서 본인이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재뿐 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취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제로 탐구 중이다.

영국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에서 BA Fine Art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15. 민다솔

“돈벌레” (2018)

돈벌레(house centipede) —민다솔 Dasol Min Korea / 2018 / Color / Sound / 6min 41sec / HD

외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면, 캄캄한 방안에서 티비를 보시는 모습만이 떠오른다. 낡은 얼굴에 비춰진 갖가지 푸른 화면들만이 할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말하는것 같았다. 이 영상은 목소리가 작은 나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아버지와 의 필담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서울에서 실험영상을 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살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들과 시간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관객을 동일시 만들며, 잊고 있던 기억과 감각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현재는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16. Min Seok 민석

“Untitled” (2020) “Money Bag” (2020)

Untitled

Acrylic on canvas/ 91X72.7 /2020

-'Untitled'는 저의 현재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사람들에게 빛나 보이고 싶어 특색이 뚜렷한 사치품들을 착용을 했지만 반대로 저만의 개성이 없어지고 더욱더 무난해져 가는 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색이 없고 선들로만 작업을 하였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은 헤어 컬러부터 눈동자까지 제일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여성 캐릭터가 반대로 색이 없으니 화려함은 잊혀지고 미완성처럼 보이게 됩니다. 색이 없어 밋밋하고 또는 미완성처럼 보이는 캐릭터로 저의 걸모습을 표현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Money Bag

Acrylic on canvas/ 91X72.7/ 2020

-마키마우스 가 무작위로 부풀려져 있고 돈이 꽂혀있는 MoneyBag을 들고 있는 모습을 작업 하였습니다.

-캐릭터가 가방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한 브랜드에 신상이 나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협찬을 줘서 홍보하는 모습처럼 제가 작업한 가방을 캐릭터계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한 시리즈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모습을 복잡하게 엮여있는 풍선처럼 느껴졌고 이런 감정의 모습을 작품 속에 무작위로 부풀려져 있고 복잡하게 엮여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들을 작품 속에 담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 Noah 노아

“project: 활동의 여지 2, 섬” (2020) “project: 축각적 심상, 바람이 지나는 길” (2020)

Project: Room for Interaction 2, An Island_Painting installation, Ink-and-wash on fabric, 2019

Featuring an island as its theme, this work is part of the "Room for Interaction" project, whose effect is based on the viewer's communication with a given space. This project began with a question about the material space of an exhibition room and the qualities thereof.

An exhibition room is a psychological space where the interaction between its physical volume and the viewer as a subject conveys introspective qualities. While existing as a part of a building or a spot in a city, an exhibition room is nonetheless endowed with special attributes on a perceptive level. As can be seen from mere pedestrians being transformed into viewers with access to aesthetic experience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an art exhibition, this work premises that the space of an exhibition room is self-reliant and self-isolating.

In this vein, this work of painting installation materializes the insights and concepts that are derived from space in the form of nature. White fabrics swirl around the exhibition room, creating the spaces where abstract, ink-and-wash landscape paintings are displayed. These paintings allude to unspecific places in nature—that is, places that can be replaced by "here (the constructed space)" that resembles there (the space recalled by the viewer's experience)."

The fabrics, by their nature, respond even to the slightest movements, and the flow of such movements continues to resonate within the given space. This stands for the water surrounding the island, and the viewer is led to perceive the exhibition room itself as an island. The artwork as a whole is placed across and encompasses the viewer, putting the viewer in the role of yet another island. Eventually, the viewer is also placed across the artwork, and is led to recognize the sense of isolation amidst the open space. The temporal experience of

meditation, which is represented through the overlapping isolation, becomes amplified within the introspective psychological space with all its spatial characteristics.

project: 활동의 여지 2, 섬_페인팅설치, 천에 수묵, 2019

장소와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여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섬을 주제로 한 작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시장 자체의 영역과 현장의 속성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물리적 부피와 주체 간 상호작용으로 내향적 기질을 드러내는 심리의 공간인 전시장은 비록 건축물 일부로서 내지는 도심 속 하나의 장소로서 존재하지만, 지각적 차원에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행인이 전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심미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관객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것처럼 전시장의 장소는 독립적이며 자발적으로 고립한다는 전제를 하였다.

페인팅 설치 작품은 이처럼 공간으로부터의 이해와 개념을 자연의 형체를 빌려 풀어낸 작품이다. 전시장 내부에 소용돌이치듯 흰 천이 에워싸여지고 여기서 생성된 영역에는 수묵담채로 묘사된 풍경과 추상적 페인팅이 나타난다. 페인팅은 자연 속 불특정 장소를 암시함으로 '그곳(관객의 경험에 의존한 장소) 같은 이곳(구축된 공간)'으로 대체 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천은 작은 동작에도 자연스럽게 되고 잇달은 움직임의 물결은 계속하여 공간을 울린다. 이는 섬을 둘러싼 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전시공간 자체를 섬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작품은 관객 사이를 가로지르고 감싸며 관객 또한 섬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고 이를 통해 관객은 작품을 통과하며 사실상 개방되어 있음에도 단절된 공간을 느끼게 한다. 중첩된 고립으로 형상화된 명상의 시간은 장소의 특성에서 비롯된 내향적 심리공간에서 확장되어 나타난다.

Project: Tactile Imagery, The Road Where the Wind Passes by_Installation object, Epoxy resin, 2020

The imagery project is an intermediary of senses, which allows the viewer to perceive the same senses as the artist. It was inspired by the literary concept of "imagery," which refers to an image in one's mind.

Among the works belonging to the project, "The Road Where the Wind Passes by" portrays nature through conveying the senses of passing by. Being a multi-media series, the work includes a single-channel video, paintings on flat surface, and installation objects. The video work with its visual and auditory approaches, together with the video clip of fog and water that is repeatedly shown in the paintings, indicate nature and serve as an introduction to the work. The installation objects feature a patternized depiction of foams that come together and fall apart, creating abstract and transparent forms while symbolizing purification.

Such images of sensory experiences prompt the viewer to recall related experiences and recognize the transference of emotions, ultimately forging empathy among the artwork, the artist, and the viewer. The effect of this work takes place as the time in nature, which is captured through senses, is examined within the scope of contemplation.

project: 촉각적 심상, 바람이 지나가는 길_설치 오브제, 에폭시레진, 2020

심상 프로젝트는 화자가 감지한 것을 관객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각적 매개체로서 마음속의 그림을 뜻하는 문학적 표현, '심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업이다.

그중에서도 '바람이 지나가는 길'은 스치는 듯한 감촉을 전달하며 자연을 형용한다. 싱글 채널 비디오, 평면작업과 설치 오브제로 시리즈는 복합미디어 구성이며 시각과 청각으로 접근하는 비디오 작업과 회화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안개와 물의 영상은 자연을 가리키는 Intro의 역할을 한다. 설치 오브제는 맞닿아 부서지는 포말을 패턴화하여 묘사되어 투명한 추상적 형상으로 놓여져 정화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작품에 의해 재현된 감각적 체험의 표상은 관객으로 하여금 경험을 일깨우거나 감정의 전이를 의식하게 하며 작업, 작가와 관객과의 공감을 형성한다. 본 작업은 감각으로 획득된 자연에서의 시간을 사색의 범주로 조명하여 성립된다.

Ah Rho majored in oriental painting, visual arts, and painting. She earned her bachelor's degree from Duksung Women's University in South Korea, and has currently received her MFA in painting from Muthesius University of Fine Arts and Design in Germany, where her works have been supervised by Professor Antje Majewski and Professor. Dr. Norbert M. Schmitz. Prof. Dr. Schmitz was also her thesis supervisor. She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solo and group exhibitions and projects in Germany, where her works have been displayed in Kunstraum B e. V., Atelierhaus am Ansharpark, Kunst Festival Kunstflecken, and many more.

She was granted DAAD scholarship from the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Her artworks include both two-dimensional paintings and three-dimensional installations and objects. She seeks to represent the time and space in nature through installation works based on synesthetic multi-perspectives, and explores themes concerning empathy and communication.

노아는 동양화, 시각 예술 및 회화를 전공한 동양화 설치미술가이다. 한국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동양화과 학사를 이수하였으며, 독일 뮈테지우스 국립예술대학교 시각예술 회화과에서 Prof. Antje Majewski, Prof. Dr. Norbert M. Schmitz (이론 및 논문지도 교수)로 부터 사사하여 석사 과정을 이수 하였다. Kunstraum B e.V., Atelierhaus im Ansharpark, Kunst Festival Kunstflecken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독일에서 전시 활동을 하였다. 작업은 평면 회화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설치와 오브제를 활용하여 전시한다. 자연에서의 공간과 시간을 공감각적 다시점 차원을 토대로 설치로 형상화하며 감각의 전이와 양방향적 소통에 관한 주제를 연구한다. 현재 한국과 독일에서 거주, 활동 중이다.

18. Ohkyoung Noh 노오경

“대학동 헤테로토피아 자연” (2020)

<대학동 어디에 있는 자연>

<Seeking for the "Nature" in the Daehakdong city>

이 작업은 "대학동에 자연은 어디에 있습니까?(where is the nature in the Daehakdong city)"라는 작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짜여진 벽화이다. 인구 밀집도가 유난히 높은 대학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각자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는지 인터뷰하고, 그들이 말한 장소에 찾아가보았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시각물로 완성할 때 그들이 말한 모든 내용들과, 내가 인식한 대학동의 자연이 전부 혼재된 하나의 씬(scene)을 보여주기를 의도하였다. 결국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연'을 총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약간의 리얼리티와 우리의 유토피아적 환상이었다. 이 소망스러운, 동시에 이질적인 풍경은 '대학동 어디에 있는 자연', 우리의 대답 배후에 있는 풍경이다.

Ohkyoung Noh is a BFA student in Fine Art, Painting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where she will graduate in the winter of 2020 with the Art and Creativity Education Student-Designed Minor. Noh's work actively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 through visualizing the heterotopia(: the world within worlds but somehow 'other' sphere) between them, based on the qualitative research of people who can belong to it.

Noh has developed the way of research through her intensive study and 2 funded researches in the Public sphere and Pedagogy for 4 years crossing Korea, UK, and Finland. During the study, she sought a way of combining research methodology and her nomadic experience in her art practice. Noh has experimented with and developed her convergent approach having 4 group exhibitions in Seoul. Her approach is to visualize the heterotopia and suggest the methods which enable it, eventually dismantling the keywords that we have in our minds as ideal in both public and private sphere. In 2020, Noh selects the word, "better life" in public and private areas in a city. Noh interviews and organizes workshops with city dwellers to derive the abstract ideal that she and 'we' share, and to find 'our' ways of 'similarly' realizing it as 'heterotopia'.

노오경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와 창의예술교육학을 공부하고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을 작업에서 융화하려는 탐색을 지속해왔다.

작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적 영역과 사적 개인의 영역이 모호해지는 동시대를 마주하여, 각자가 처한 물리적 공간에서 '더 좋은 삶(better life)'에 대한 나름의 대답, 태도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 작업을 하고 있다. 탐구의 과정은 작가의 신체가 관계맺는 시공간과 사람들, 사태와 관련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현실에 구현되는 '다른 공간')'를 일시적=로 구축 및 제시함으로써 성취불가능한, 혹은 유토피아화된 키워드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이의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험하는 것이다. 최근의 관심사로는 작가 본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도시인, 자취인들의 헤테로토피아를 자연, 쉼터, 휴게 등의 세부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시각화하는 데에 있다.

19. Evge Noriavić

“Glacial Wave” (2020)

“Vision” (2020)

Glacial Wave : Performance in an iceberg lagoon in Iceland. The artist had to swim in the freezing cold water, climb on the iceberg with her nails as crampons, and defy hypothermia to get this photo where the curve of the body perfectly meet the curve of the ice.

Vision : The strange atmosphere of this Vision comes from an experimentation with light variations in a single photo.

Evge Noriavić is a french self-portrait artist, born in 1999. After her career as a model, she decided to work on dramatic and powerful self-portraits centered on expression, geometry, and the strength of light and dark. Her most striking and well-known work is a project of photographic performances in the Arctic, where she poses on glaciers, icebergs, in total vulnerability and synergy with the ice.

20. 박다빈

“Person” (2020)

<Person.jpg>는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유사품이 만들어진다. 작가는 딥러닝 프로그램인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 생성한 '사람' 이미지를 내세워 실제 인간에 대해 묻는다.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인 Person.jpg는 픽셀, 바이트, DPI 같은 단위로 정의된다. 그 옆에는 데이터 오류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있다. 둘 다 실재하지 않지만 하나는 사람 형상이고, 하나는 사람이 되려다 실패한 괴생물체의 형상이다. 오류와 실수에 주목하면서 작가는 진짜 인간과 인간 이미지를 가르는 것은 '행위'라는 가설에 도달한다.

박다빈은 기술 환경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끼친 영향과 인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개인과 이미지, 그리고 데이터의 관계성에 집중한다. 주로 리서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하여 새롭게 재조합하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사진과 설치물을 시도하기도 한다.

21. Hyerin Park 박혜린

“Untitled” (2021)

회화에 나타난 인물들이 행위하고 있는 모습에 아무런 단서가 없다면, 관람하는 이들은 무슨 상상과 의문을 제기할까.

박혜린은 단국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후 인물 중심으로 작업 하고 있다. 작업의 주된 주제는 무의식과 상상이다.

'작업을 할 때 온 정신을 그 행위에만 집중한다. 나타내고자 하는 인물을 드로잉을 한다. 계산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 즉흥적으로... 이런 과정 또한 중요한 일부이다. ... 옛 명화들을 보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다. 인물의 의복이나 인물 간의 관계, 배경 등으로 통하여 스토리를 유추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모두 배제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작업이다. ... 어린 시절 미술 교과서에 나온 누드 명화를 보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는 채 그 작품을 감상하고 있노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보는 이들에게 그러한 감정을 안겨주면 어떨까 싶어 궁금했다. ... 작업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들은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는다. 그저 즉흥적으로 그려진 뒷 배경,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눈코입조차 없는 인물들만 있을 뿐이다. ...' 작가 노트 中

22. Dongyoung Seo 서동영

“불꽃놀이” (2020)

“글루건” (2020)

“변형” (2020)

“미사일” (2020)

웃는입과 흘러내리는 액체를 주로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과 사물들을 연관지어 일러스트를 그립니다. 그림에 큰 의미나 철학을 담지 않고 벽에 그려진 낙서같은 의미없는 일러스트를 추구합니다. 의미없이 그린 일러스트를 보는 이들이 '나름대로 저 작가는 어떤 철학이 있는거 같구나' 라고 생각하길 바라는 일러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미없는 것을 남들이 의미있게 봐주는것' 나름 저만의 철학아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전공하고있습니다. 흘러내리는 액체, 덩어리를 주제로 디지털아트 작업합니다

23. Donghyun Shin 신동현

“죽은 신발에 대해” (2019)

“식에 대해” (2020)

죽은 신발에 대해
신고 걸을 수 없는 순간 신발은 죽는다.

내 신발에는 역사와 흐름이 존재한다. 언제나 낡은 신발을 신고, 신발가게에서 새로운 신발을 샀다. 신발은 언제나 그랬고, 그런 계승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있었다. 그렇다면 신발 한쪽을 잃어버려 신고 새로운 신발을 사러 갈 수 없는 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 신발의 장례를 위해 반대쪽 신발을 제작하고, 그 신발을 신고, 신발가게로 가 새로운 신발을 샀다. 이로서 신발의 역사는 계승된다.

식에 대해

'우리가 다른 생명을 다른 종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른 종을 이해하는 법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작업은 시작한다. 나는 그 해답을 먹는 것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그렇기에 다른 동물의 입으로 그 생명을 이해해 보려한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작가 **신동현**이라 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조소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주로 하는 작업은 설치와 복합 매체 작업을 합니다.

24. TITCH 티치

“한(恨) 숨” (2020)

< 한(恨) 숨 , " 걱정 되어 낸 한숨 보이지 않아도 세월이 느껴지네 " >

지친 일상 속 나 홀로, 고독(孤獨)을 찾다. Alone in a weary daily life, seek solitude.

때론,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지치고 피곤하지만 어디론가 훌쩍 홀로 떠나고 싶은 마음 조용하고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담아내 공감할 수 있는 평범지만 공감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고독한 저의 삶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5. Hyeonjung Yoon 윤현정

“군집” (2020)

나의 관점에서 군집을 이루는 것은 사회의 사람들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수차례의 성장기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사회 규격화된 틀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집단을 위한 인간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수 많은 군집 들은 풍경의 일부분 처럼 어디에나 있다. 흡사 풍경이 된 인간들의 군집이다.

저는 사회의 군집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하고있는 윤현정입니다. 2015년 군집이라는 키워드로 처음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7년도 졸업 전시에서 개인에 대한 군집으로 회화작품을 발표했으며, 2018년도 2월에 학사를 졸업하고, 2018년도 9월 “뜨거운 감자”전에서 설치작업으로서 개인의 군집작업 선보였고, 현재도 작업의 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부터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에 회화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26. Nat Ware

“Champaign, IL (Skeleton Through Window)” (2019)

“Champaign, IL (Wrinkles)” (2020)

“Champaign, IL (Seth in the Shower)” (2020)

Champaign, IL is an autobiographical photographic documentation that began as an exploration of the Midwest (specifically Champaign, Illinois), then inadvertently turned into a project about the collapse of a toxic relationship. Using the setting of their then-romantic partner's home in Champaign, Ware teases out themes of obsolescence, isolation, and being trapped in something that's past its expiration date.

Below I have attached the google drive files of my images.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from me, I am so thrilled to be a part of this showcase! Thank you so much!

Nat Ware is primarily an analog photographer, with interest in analog video and collage as well. Having grown up in the Catholic Church in Portland, OR, they utilize this experience as a springboard for examining the Midwest, domestic spaces, obsolescence, and the body. Nat is currently an undergraduate student at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a lab assistant at Latitude Chicago.

27. Josh Wells

“me when i'm eating fistfuls of shredded cheese at 3am and mum turns on the light” (2020)

'me when i'm eating fistfuls of shredded cheese at 3am and mum turns on the light'

80 x 100 cm

acrylic, oil, pastel and ink on canvas

Website - joshwellsart.com

Instagram - [joshwellsart](https://www.instagram.com/joshwellsart)

Josh Wells is an expressionist artist that bases his practice around the absence of control. Dictated by his unconscious, Josh uses this behaviour to evoke materials that promote his creative process. Josh's practice emulates a confrontation to the psyche, creating these vulnerable, absurd, raw depictions of the human form. This communicates how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intense psychological states can be signalled through visible concepts. His work takes this confronting approach to this breaking down of consciousness and the human mind by addressing it in such a raw, interrogating approach.

Josh Wells' work's purpose is to contribute to research into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intense psychological states, exploring different states of the mind through the use of psychic automatism. His Research based practice has the born motive of filling the blurred line between reality and delusion, the practice also conforms with the ground-breaking research into communication patterns and its correlation into psychology.